

‘명품대학’의 조건

서거석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북대학교 총장



한 5~6년 전쯤 됐을까. 지구촌에서 가장 흔한 음료의 하나인 커피를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 만들어낸 스타벅스 이야기를 다룬 책 『스타벅스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 시애틀의 작은 커피 가게로 시작하여 전 세계 커피 체인점의 대표주자로, 세계 초일류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었던 스타벅스의 다섯 가지 성공원칙을 그린 책이다. 꽤 시간이 흘렀지만 ‘스타벅스는 커피 한 잔으로 세상과 행복을 나누는 곳’이라는 글귀가 아직도 내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다. 이 말대로라면 스타벅스 커피는 곧 행복이다.

그렇다면 스타벅스는 커피라는 아주 평범한 음료를 어떻게 명품으로 만들었을까. 전문가들은 이비결을 ‘본질’에서 찾는다. 스타벅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쾌적한 인테리어와 편안한 한옥, 따뜻한 미소로 손님을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들, 그리고 코끝을 자극하며 온몸의 활력을 되살려 주는 그윽한 커피 향과 맛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요소가 명품 커피가 되기 위한 전제임이 틀림 없다. 하지만 이 중 커피의 본질을 꼽으려면 단연 ‘맛과 향’이다. 우리는 스타벅스에서 아무리 평범한 상품이라도 끝없이 본질적 속성을 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마케팅하고 서비스하다 보면 결국 ‘명품’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는다.

위기의 한국 대학

그렇다면 대학의 경우는 어떨까. 현재 한국 대학들은 우수한 자원을 뺏아 놓고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고 있다

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다양한 국제올림피아드와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생들이 계속 세계 최고 수준의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대학교육의 질을 가능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한국 대학 ‘경쟁사회요구 부합도’는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 조사에서 한국은 58개국 중 최하위권인 46위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원을 받아들인 한국 대학들이 사회와 시장이 요구하는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업들은 대학 졸업생들이 인성, 도덕성,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다시 현장교육을 시킨다고 한다.

세계 대학 평가에서도 한국 대학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평가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세계 100대 대학에 드는 경우는 한 손에 꼽을 만큼 드물다. 대부분 세계대학 평가가 연구 실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여전히 한국 대학들의 글로벌 연구 경쟁력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반증한다.

얕친 데 얕친 격으로 한국 대학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학령인구의 급감 현상은 한국 대학의 미래가 어떠한지 잘 보여준다. 현재 64만 명인 고졸자 수는 2017년에 56만 명으로 줄어든다. 대입정원 57만 명보다 입학자원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2020년에는 고졸자가 46만 명으로 대입정원보다 11만 명 적어진다. 반면에 대학 진

학률은 2009년 78%를 기점으로 하강곡선을 그리더니 지난해 71%까지 낮아졌다.

이런 추세라면 2020년까지 한국 대학 120여 개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대학 붕괴의 쓰나미 현상이 초래될 것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대학의 붕괴가 지역사회의 붕괴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국가적 위기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대학의 본질과 명품대학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런 상황을 대학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여기서 한국 대학들은 글로벌 명품기업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때 기본, 즉 본질에 충실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학들 역시 위기 극복의 첫걸음은 본질에 충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대학,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학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학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 하나는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 높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들은 먼저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 대학들은 별 고민 없이 대개 전통적으로 해오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지식 전달을 반복해왔다. 개별 대학 나름의 설립 이념이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가 뚜렷하지 않은 생명력 없는 교육을 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세계인들과 경쟁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어렵다. 빛의 속도보다 빠른 지식정보화사회를 살고 있는 시대에 1970~1980년대 사고로는 대학의 미래나 국가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학들은 자기 대학만의 특성을 살린 인재상을 제시하고, 그 인재상을 중심으로 목표가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교과과정을 바꾸고, 교육프로그램을 다듬고,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대학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대학교육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며, 곧 대학의 본질을 살리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학 본질의 다른 하나는 연구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가 발전을 선도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선 대학과 정부의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대학의 연구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특히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통해 기술력과 지식자원을 확보하여 사회와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우수한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한국 대학들은 이 점에 충실했는지 겸허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연구력이 뛰어난 교수를 유치하고 그들이 대학에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들은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선진 대학들과의 공동연구와 같은 글로벌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한국 대학들의 연구력이 세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그동안 두뇌한국21(BK21) 사업과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사업)과 같은 정부의 대규모 지원 사업이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연구력이 뛰어난 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는 물론 지역 성장동력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 대표대학들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세계인이 선망하는 명품대학이 되기 위한 길은 멀고도 험하다. 그러나 한국 대학의 미래와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길임에 틀림없다. 대학 설립 이래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한국 대학들은 '위기는 곧 기회'라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기고 특성화 교육과 연구의 큰 밑그림을 그려보자. 이것이 바로 명품대학으로 가는 첫 단추를 꿴 것이다.

전북대 법정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주오(中央)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2년부터 전북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2006년 12월 전북대 제15대 총장에 취임한 이후 구성원들의 재신임을 받아 2010년부터 제16대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소년법학회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공립 법과대학장협의회회장과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회장,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교육분야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즉 최선을 다한 뒤 평가받자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